

1. 지난 주에 우리는 다윗의 마스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적인 시편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피하는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복이란 도리어, 심판이 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 진 자, 도 그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 다윗이 마스길에서 말하는 “허물의 사함”이라든지, “죄의 가리움”이란, 어떤 행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댓가를 면제받거나 심판의 형벌을 피하는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그 상처를 후피고 짜내는 일까지 겹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한 법이지요. 또 그래야 거기에서 치료와 회복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3. 다윗은 스스로를 복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 역시, 그런 다윗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매우 당하지도 않고 가스라이팅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를 복된 자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댓가를 치르고서 영원히 죽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에게는 그의 죽음을 대신하는 분이 가까이 계셨지요. 곧,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그 벌을 대신하시는 예수께서 그 순간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5. 시편 32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곧 그 자식이 죽어버린 것이었지요.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백성들은 죽어나갔습니다.
6.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출장 중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시 139:8), 거기서도 끝끝내 그를 붙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심판하셨지요. 바로 그 형벌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다윗은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 어느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찾아왔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눅 3:7)?”
8.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데이 찌포님”, 곧 독사의 자식이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을 가리키지요. 그 무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 세례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었지요.
9. 그때, 그 자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노를 피하려는 그들의 의도이지요. 심판을 면하고, 혹 심판을 당하더라도 형량이 가벼운 것으로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렌들 못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허물의 가리움이나 죄의 용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 일반화해 보자면,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 한다거나, 또는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무슨 도피성에 들어간 것처럼, 형벌을 피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그런 행운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 종교행위일 뿐이지요.
11. 시편 32편의 마스길에서 다윗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는 그런 종교, 혹은 그런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허물을 사함받고, 또 어떻게 그 죄가 가려지는 지에 대한 비법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그것들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대신, 이 마스길은, 허물많은 다윗과 그걸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 순간 자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시지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와 가깝지요. 이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말입니다.
13. 바로 그 순간, 다윗의 그 형벌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원히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시편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영원한 죽음을 막아서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 끄트머리에, 그가 최후심판의 홍수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을 낭독하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복으로 상당히 빨리 변화되어 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 마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가 나오지요. 다른 말로, 즉각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15.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보라! 회개하니까 곧 용서하시지 않느냐?”. 자복하니 곧 허물이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6. 독사의 자식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즉각 머리를 들이밀지요.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바로 먹으려 합니다.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회개 정도 못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정죄만 당하지 않는다면, 저 털옷입은 미치광이에게 세례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17.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 두 줄의 마스길의 행간에는 다윗의 실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는 자들은, 그 “자복”과 “용서”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알지요. 그 사이에 다윗은 죄를 짓는 족족,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고, 보복을 당하고, 또 즉결 심판을 받고, 결국 형벌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18. 사무엘하서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 24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라고 했지요. 그 규모란, 지금의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정규군과 맞먹습니다.
19. 이것이 잘못된 줄 깨달은 다윗이 곧 여호와께 자백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삼하 24:10)" 그랬더니 바로 선지자 갓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용서하신다는 것이었던가요? 아니지요, 바로 3가지 형벌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기근이냐, 망명이냐, 전염병이냐?

20. 이때 다윗의 대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데 여호와께서는 궁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21. 재판부 기피신청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가장 짧은 형벌기간을 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근은 7년이고, 망명은 3달이었지요. 그리고 전염병은 사흘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흘간의 판데믹을 선고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재판부에 배정을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22. 아니지요. 형벌 중에서 가장 빨리 집행되는 곳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재판부라는 소립니다. 가장 빨리 집행되는, 그러나 가장 심판 큰 형벌을 내리는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3. 이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삼하 24:17)”
24. 대단한 소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윗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충분하게? 아니지요. 16절에 보는 것처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이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사흘 안에 모두 멸망시켜야 끝난다는 것이지요. 다윗과 그 아버지 집을 포함해서!
25.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스스로 16절에,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십니다. 그리고 죽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손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신학에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성부만족설이지요. 피에 짖주린 하이에나가 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말입니다.
26.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 입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고, 그곳은 예수께서 영단번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린 곳인 것입니다.
27.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흘 만에 그치는 이유는, 다윗이 충분하게 벌을 다 받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제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밖에 없는 것입니다.
28. 그 길 밖에 없는데, 세례라도 받으면 허물이 가려질까 생각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란,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의 목숨에 노예가 되어서 서슴치 않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우상숭배자들인 것입니다.